

달서와 함께... 전국 드론계의 슈퍼루키를 찾아라!

제3회 달서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드론 분야 저변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9일(토) 성서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3회 달서 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가 주최, 대구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드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대회장소가 실내로 변경되면서 기상(氣象) 변수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경쟁하

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는 미니드론 장애물 레이싱 경기로 진행되며 초등부 및 중·고등부 두 부문으로 나눠 각 조별 예선을 치르고, 조별 6명 중 24명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부문 별로 7명(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3)에게 시상하고 부상으로 각각 문화상품권 7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을 수여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경기규정 등 대회 세부내용을 확인 후 10월

31일(목)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날 드론대회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드론 빙고 게임, 드론 FPV 체험 사족보행로봇 전시, 로봇과 오목대결 등 12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신기술 시대를 견인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드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결혼친화도시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30만 원 지원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초저출생 시대에 인구위기를 극복하고자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은누리상품권 30만 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는 결혼축하

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19~39세 이하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지원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이나,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한편 달서구는 인구위기를 예측해 2016년에 전국 최초 결혼장려팀 신설, 결혼장려지

지역인사 동정

(재)달서문화재단, 신임 상임이사 박병구 전(前)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재)달서문화재단(이사장 이태훈)은 신임 상임이사로 박병구 전(前)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내정했다.

박병구 신임 상임이사는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 예술대학원을 졸업하고 (재)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대구미술협회 회장, 대구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 내정자는 10월 10일(목) 공식 취임할 예정으로 2026년까지 2년간 달서문화재단을 이끌게 된다.



〈자료제공:달서문화재단〉

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결혼 축하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결혼친화 인식개선·만남 기회제공·결혼장려 인프라구축·

탄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결혼장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

푸른방송과 푸른신문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달서구 달성군의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기사를 통해 가계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필요하신 분은 푸른방송 551-2000, 푸른신문 572-6000로 연락 주십시오.

* 1.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푸른신문에 제보해 주신 기사가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2. 사랑하는 사람, 보고싶은 사람, 고마운 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사연과 관련 사진, 동영상 등을 푸른방송 제작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gcsup@gcs.co.kr)

푸른방송 홈페이지 QR코드



푸른신문 홈페이지 QR코드

